

비노·친노 난타전... 혁신기구로 해결될까

새정치 전 계파 참여 공천·인적 쇄신 등 논의

비노 진영 “지도부 책임론 회피 미봉책” 반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공천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계파를 초월한 별도의 혁신기구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비노-친노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당내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당내 제 계파 인사들이 참여한 혁신기구가 활동에 들어간다면 당 혁신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비노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혁신기구에 대해 친노 진영의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반응과 함께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비주류 일부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중도 인사들로 혁신기구를 꾸려 개문발차 형식으로 출발하는 것

은 물론 내년 총선 공천에서 상당 수준의 인물 교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혁신기구 권한은=문재인 대표가 내놓은 혁신기구의 성격은 당내 모든 계파가 모두 참여, 공천 개혁, 인적 쇄신 등 당내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기구가 순조롭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권한이 보다 강력해야 하고, 위원 구성도 가급적 친노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지 않고 당내 계파를 모아 혁신위원을 구성한다면 당내 역학구조상 범친노 세력이 전체적인 판을 지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기구의 권한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현재까지 논의된 결과로는 혁신기구에서 논의된 결과는 절차상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절차가 많 그대로 절차가 될 것 인지는 확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 등 민감한 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최고위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재논의 하라며 다시 혁신기구에 내려 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혁신 가능하나=혁신기구가 구성된다 해도 당내 갈등이 해소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내년 공천 혁신을 둘러싸고 주류, 비주류 간의 쟁점은 다르다는 점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 내외에서는 친노를 중심으로 하는 당내 주류가 혁신기구 구성을 통해 비주류의 반발을 최소화, 호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인적 쇄신에 나서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비주류에서는 혁신기구를 통해 친노 진영의 공천 임금을 최소화하고 비례 대표를 중심으로 강성 진보 성향의 친노

인사들의 공천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혁신기구에서 논의하게 될 현역 국회의원 평가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 전략공천과 경선 등을 통해 새로운 인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 다.

당장 평가 기준을 놓고 상당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이 제 머리를 깎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의 근심도 깊어가고 있다.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전정백 의원이 이미 ‘뉴 DJ’(김대중 전 대통령)들을 모아 호남에서 새정치연합과 경쟁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 혁신기구 구성 여부를 떠나 공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선주자 양자대결서도 김무성, 문재인에 앞섰다

갤럽, 金 42%·문 38%

정치인 선호도에선 文이 1위

차기 대선주자 양자대결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앞선 결과가 나왔다.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김 대표가 문 대표를 앞선 것은 몇 차례 나왔으나 양자대결 결과는 처음이다.

한국갤럽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문 대표 선호도는 15%로 예비조사를 통해 추려진 8명 후보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12%), 3위는 박원순 서울시장(1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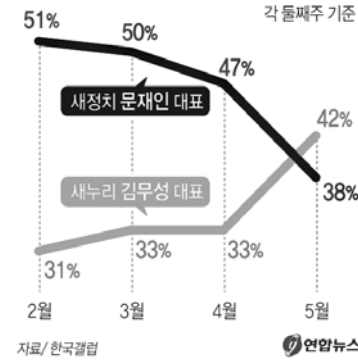
다만, 문 대표 선호도는 재보선 이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달 7~9일 여론조사에서 문 대표 선호도가 22%였으나, 지난 12~14일 이뤄진 이번 조사에선 약 한 달 만에 7%포인트 빠진 것이다. 반면, 김 대표 선호도는 같은 기간 9%에서 3%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2017년 대선과 관련, 김 대표와 문 대표를 놓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느냐’를 묻은 결과 김 대표는 42%, 문 대표는 38%를 얻었다.

갤럽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김 대표가 문 대표보다 14~20%포인트 열세였으나, 이번에는 김 대표가 문 대표를 4%포인트 앞서면서 비등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며 “최근 양당이 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새정치연합 내분과 관련, 문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여야 대표 지지도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느냐, 그럴 일은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는 ‘사퇴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33%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새정치연합 지지자(218명)의 81%는 문 대표의 사퇴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에선 ‘잘하고 있다’가 40%, ‘잘못하고 있다’가 50%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부정적인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2%로 새정치연합 22%를 여전히 앞섰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새정치연합 지지도는 2%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 남녀 1천1명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 방식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라고 갤럽은 밝혔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문재인 대표 5·18전야제 참석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거리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영록, 3회 이상 난폭운전 면허취소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3회 이상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은 난폭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되 3번 이

상 걸리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난폭운전을 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보복성 난폭운전이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상해 사고가 발생해도 폭력행위로만 처벌하고 있다”며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박혜자, 지역교육환경 개선 교부금 10억 확보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지역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5500만원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광주서초등학교와 화정초등학교의 서면텍스 교체비용 각 3억 7600만원, 3억6100만원이며 서석중학교

인조잔디 개보수 비용 3억1800만원 등이다. 박 의원은 “지역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의 예산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문재인, 부산 노무현 추모 문화제 불참

김무성 대표는 23일 봉하마을 방문 참배 예정

4·29 재·보궐선거 패배 후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화제는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 문성근 국민의명령 상임운영위원장 등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 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울산·경남지역 당원과 재단 지역위원회 관계자, 시민 등 6000여 명이 추모 문화제를 찾았다. 이날 행사는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친노 진영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문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6주기인 오는 23일 경남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라고 김 대표 측이 17일 밝혔다. 김 대표의 이 같은 계획은 여당 대표로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지난 2월14일에도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함으로써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모 두 찾은 바 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접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 522.3㎡(158.15평)

연 면 적 : 2,073.86㎡(627.96평)

층 수 :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 병원(요양병원)

허 가 번 호 :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 서양새마을금고

건 축 주 :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출관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을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즉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화문의 010-7659-8900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인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전망과 전라남도 미래가치 분석

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낱알이 밝히고 국토계획부에 근거한 부동산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5. 5. 19(화)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자처 매물 분석 및 공개
2. 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응
3. 부동산 가격상승 핵심지역 분석
4. 돈되는 부동산 투자법 공개
- 가장 미래가치가 있는 땅은 무엇인가?
5. 소액투자로 월세받는 비법 공개
6. 실물투자(금·외환투자·원자재) 투자성공법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메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